

3. 배 방 면

[25] 공 기 바 위

역사상 술한 회민족의 침입에 온갖 어려움을 당한 우리 민족의 시련이 이야기들은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힘과 슬기로 물리쳤던 한 통쾌한 이야기를 배방면 회룡리 공기 바위에 얽힌 이야기에서 찾아 보자 . 먼 옛날 외민족의 침입에 잠잠했던 이 나라에는 애타는 함성이 번져갔다. 그 당시 아산군 배방면 회룡리 마을에는 박 지용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 못숨을 잃고 시심만 고향에 전해졌다. 박 지용의 집에서 늙으신 홀어머니와 갓 혼인한 부인만이 어려운 살림을 이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을 잃은 부인은 늙으신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슬프을 닫고 일어섰다.

그후 전쟁도 한창일 때 부인은 유복자를 낳았다. 부인은 항상 남편의 애틍적인 죽음을 애도하며 어린 아들에게 침입자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기를 기대하며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이런 어머니의 기대에 순응하듯 어린이들은 남다른 행동을 보이며 자랐다. 3살 때에는 보통 글을 다 알았으며 어머니에게 원을 풀어 주겠노라고 위로까지 했다. 그 마을뒤에는 마주봉이라는 산봉우리가 있었다. 꼬마는남몰래 마주봉에 올라가 뜻을 어린 마음을 굳혔다. 그가 위용을 필때마다 천지가 뒤흔들릴 것 같은 우레 가 비쳤다. 싸움이 계속된 어느 날 그 마을에도 침입자들의 발길이 머물게 되었다. 침입자들은 온갖 탈취와 행패가 거듭될 때 마주봉위에서 거센 함성과 함께 많은 꼬마 병정들이 온 산을 휘감아 덮어 버렸다. 물론 꼬마가 어디서 솟아났는지 모르나 바람같이 타나탄 구원병인 것이다. 꼬마와 병정들은위엄 있는훈계화 함께 바위를 집어 공기놀이를 했다. 이에 침입자들은 겁에 질려 그들의 죄를 빌며 줄행랑을 쳐 다시는 그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후 꼬마가 가지고 공기놀이를 했던 그 바위가 오늘날 마주봉 산 밑에 남아 있어 지나는 이들 무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꼬마 박장군의 애틍적인 통쾌한 놀이가 가슴에 느껴와서 시원한 것일까

[26] 기린 고개

아산군 배방면에 사는 맹정승은 언제나 어딜가든지 검은 소를 타고 다니셨다. 검은 소에 얽힌 전설의 이야기다. 정승이면 사인교를 타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맹정승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아서 검소한 생활과 청렴 결백한 생활을 하셨다. 어느날 궁궐에 별 볼일이 없어 집에서 책을 읽다가 봄의 향취를 맡고 싶어서 밖으로 나왔다. 설화산에는 온갖 꽃들이 울긋 불긋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설화산을 오르다가 청년들의 떠드는 소리와 후다닥하는 소리가 맹정승의 귀에 들려왔다. 청년들은 검은 동물을 처음 보는지라 신기하게 여겨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맹정승이 앞으로 나아가니 청년들은 작대기를 놓고 앞드려 절을 하였다. 맹정승을 본 검은 산 짐승은 맹 정승에게 다가와서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좋아했다. 맹정승이 산을 내려 오는데 그 짐승이 뒤를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집까지 와서 하인들에게 이 검은 산짐승은 성품이 착한 것 같으니 잘 키워기 바란다 하시며 나가셨다. 이 검은 산짐승은 점점 커지더니 목이 길어지는 것이 기린 모습을 닮아갔다. 맹 정승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한 짐승이다. 동네 사람들은 이 검은 기린을 검은 암소라고 부르며 하늘이 맹사성의 높은 인격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정성에 감복하여 하늘이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검은 기린은 운양에서 서울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맹정승을 태우고 다녔다 한다. 기린이 나타난 곳을 "기린 고개"라 부르며 검은 암소라고 불리는 짐승은 맹정승이 돌아가시자마자 역시 죽었다고 한다. 비록 짐승일망정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 참으로 훌륭하다 하여 그 짐승을 맹정승의 묘 옆에 묻었고, 그 무덤을 흑기총이라 부르고 있다.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인간들이 은혜를 저버린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리라.

[27] 말 바 위

배방면 주리검배(黑岩)뒤에 "말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다. 그 바위에는 신기하게도 굴이 파였는데 그 곳에 말을 하면 울려 나온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매일매일 나무를 해다 팔아서 근근히 목숨을 연명하는 정도의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던 한 나무꾼이 살았다 한다. 그에게는 늙은 흠어머니와 처와 울망졸망하게 자식이 다섯이나 되었으므로 생활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지라 그 나무꾼은 단 하루라도 졸으니 배불리 먹고 졸은 옷입고 기와집에서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깊은 산속으로 나물을 하러 갔던 나무꾼은 피로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시 눈을 붙인 사이 꿈을 꾸었는데 폭포수가 하얗게 흘러 내리는 밑에서 즐겁게 목욕을 하고 있는 여섯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았다. 깜짝놀라 깨어 보니 꿈이었으나 그 폭포와 여인네들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여 주위를 두리번 거려 물소리를 쫓아가 보았더니 과연 그곳에서 궁속에 보았던 광경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목욕을 마친 선녀같은 여인들의 뒤를 밟아 폭포수위에 뚫린 조그만 동굴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온갖 굴들이 만발해 있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같은 하늘빛이 있고 수정같이 반짝이는 물이 있었다. 그런데 이사 하게도 그곳은 여자들만이 사는 세상이었다. 곧 여인들에게 발견되어 그곳의 여왕인 듯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앞에 나가게 된 나무꾼은 이곳에 들어온 것이 본의가 아님을 밝히고 목숨만이라고 부지하게 하여 달라고 애원하니 그 여왕은 그의 착한 심성을 알아보았음인지 사흘동안 최대의호의를 베풀어 그를 대접하였다. 그후 바깥 세상으로 내보낼 때 이곳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해서는 아니되며 다시는 찾지도 말 것이며 만일 누설이 되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될 것이라 해싸. 그 약속으로 많은 제물을 선물받은 나무꾼은 바깥세상으로 나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차츰 세월이 감에 따라 그곳의 이야기가 하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끝내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지만 그 사실만은 이야기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마침내 참지를 못하고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여 굳게 믿은 아내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그렇게 훌륭했던 집이 온데간데 없고 나무꾼이 앉았던 자리에 바위가 생겨났다고 한다. 그후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그 바위는 "말바위"라 불려지고 있다.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일생 영화를 누릴 수 있었으나 입놀림의 욕구를 참지 못하여 비참한 최후를 맛보아야 했던 그 나무꾼의 이야기는 후세의 우리에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자재력과 인내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교훈으로 아직도 배방면 중리에 신비한 전설로 남아 있다.

[28] 미륵불 공단석

우리 동네는 약 80여 가구가 살고있는 자그마한 동네이다. 동네 뒤쪽에는 설화산이 굽어 보이고 앞쪽에는 시원한 냇물이 흐르고 있다. 냇물을 따라서 쪽 내려가면 미륵불이 나온다. 우리동네는 같은 외암리 2구이지만 아래 삼마골은 대신 단똥허너머골, 주막골, 미륵불로 나뉜다. 안똥이라는 이름은 마을의 안쪽인 중앙에 있어서 분똥여진 이름같고 허너머골은 해가지는 서쪽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주막골은 옛날에 주막이 있었던 곳이라 붙여진 것 같다. 미륵골은 물론 미륵불을 모셔 놓은 곳이기 때문이다. 미륵불에 대한 전설은 이렇다 옛날 어느 장군이 많은 세월을 전쟁터에서만 살다보니 자식들 돌수없었고 또 그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싸움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줄었다. 전쟁이 끝난 뒤 그 장군이 미륵불을 만들어 이곳에 모시고 불공을 들여 그 후로 이 마을에는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그 후로 이 소식이 널리 퍼지자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이 미륵불에 불공을 들이며 탑돌이를 하면서 소원을 빈 사람중에서 자식을 못 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소원을 빌 때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쌀을 가지고 와 돌멩이로 미륵불 밑에 있는 단을 문지르며 쌀을 미륵불에 뿌렸다 한다. 뿌려진 쌀이 미륵불에 붙어 있는 개수를 통해 미륵님이 자식을 점지해 준다고 믿었나 보다. 그 미륵불 밑에 있는 큰 돌이 sek의 가운데가 오목하게 파인 공단석인 것을 보면 옛날 사람들의 자식을 키우고 싶은 욕망 특히 아들을 키우고 싶은 욕망이 과장했음을 실감나게 해 준다. 그 원대하 욕심 때문에 오랜 세월을 눈물로 보냈을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기도한다. 요즘도 이따금씩 찾아와서 애절하게 자식을 갈구하는 가련한 여인의 이슬 맺힌 눈을 볼때마다 자식을 못 낳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옛 여인드러 슬픈 운명에 가슴이 찡 해온다.

지금은 미륵불의 주위에 잡초만 무성하다.

[29] 배방과 모산

《 배 방 면 》

나는 항상 편지를 쓰거나 우리집 주소를 쓸때면 궁금하게 생각되는 낱말이 이 배방이다. 왜 이고장을 배방면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많은 이름중에 왜 그 이름으로 하였을까? 나는 궁금하여 할아버지께 여쭙어 보았다. 옛날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나 성재산에다 성을 쌓는데 사람이 부족하여 여인들도 일을 도왔다. 그 여인들 가운데는 이 성을 책임지는 장군의 딸이 있었다고 한다.

그 딸이 너무 예뻐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이 장군딸의관심을 사기 위하여 꾀만 부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장군은 일의 성과가 잘 오르지 않자 이유를 알고파 그 까닭을 물어 보니 대답하기를 "장군님의 따님이 너무 예뻐서 그렇습니다"하는 것이다.

장군은 이 말을 들은 즉시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빼어 딸의 목을 쳤다고 한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꽃다운 나이에 죽었다고 해서 물리칠 배(排) 꽃다울 방(芳)써서 배방이라고 하였다 한다. 지금은 그 성이 어디갔나 없고 나무만 울창하게 우거져 있을뿐이다. 또한 이 성 재산성에서 내려다 보면 수많은 언덕들로 된 작은 산들이 보이는데 마치 터럭처럼 많이나 보인다하여 모산이라는 지명도 생겨났다고 한다.

《모 산》

정말 사람들의 눈과 생각은 모두가 같지는 않은가보다

[30] 북 바 위

지금은 배방면 회룡리에 북만을 만들며 살고 있는 노인이 있었다. 일생 좋은 북을 만들기 위해 좋은 소를 찾아 다니기도 하고 하루종일 북을 만들대도 있으며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든 북은 함부로 팔려하지 않았다. 그의 소원이 있다면 자기가 만든 북이 뜻있는 일에 쓰이기를 바랬다. 그 노인은 죽기전에, 후에 오래도록 남아 보람있게 쓰여질 북을 만들고 싶어했다. 그러나 몇번을 만들어도 원하는 소리가 나지않자 낙담한 노인은 부처님께 빌기를 시작했다. 그런 지성드리기가 백일이 되던 날 불상앞에서 잠이든 노인이 꿈을 꾸었는데 인자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 하는 말이 절터 아래에 있는 냇물가에 비루 먹은 송아지가 있는데 그놈을 일년하고 열흘만 고이 키워서 그 가족으로 북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다.놀라서 깬 노인은 부처님이 자기의 정성을 알아준데 대하여 몇번이고 절을 하고는 그 송아지를 잘 키웠다. 그래서 일년하고 열흘이 되는 날 그 소리가 그렇게 낭랑하고 우렁찬 수가 없었다. 한 것 만족하여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생각한 노인은 이 북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생각다 못한 노인은 마을어귀에 그 북을 걸어놓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만 손수 그 북을 울려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그때 임진난이 일어났다. 물밀 듯이 밀려오는 왜병에 의해 한양이 함락됐다는 소문을 들리고 그래서 어서 피난을 하라고 그 북을 울리려니 차라리 자기 손으로 북을 찢어 버리고 자기도 죽겠다는 생각을하였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북을 찢어 버리고 자기도 목숨을 끊었다 한다. 그런데 왜란이 끝나던 해에 그 찢어진 북에서 승전을 알리는 북소리가 우렁차게 들렸다 한다. 그후로 그 북은 다시는 울리지 않았다 하며 마침내는 돌로 변하여 그 노인은 혼과 함께 오랜 세월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다.

[31] 상여방위

아산군 배방면에서 얼마간 들어간면 우뚝 솟은 광덕산에 시선이 끌린다. 바다보다 운치있는 산을 더 좋아하는 나의 성격탓으로 모든 산에 대한 관심을 명칭 전설, 일화 등을 고집스럽게 알아내도록 만들었다. 몇 년 전 친구를 따라 멋모르고 간곳이 광덕산이었다. 땀을 식히느라고 산길옆에 쭈그리고 앉아 광덕산에 있는 상여바위에 대한 전설을 들었다.

조선초초에 광덕산 밑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 가면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마을의 김진사댁에 외동딸이하나 있었는데 아름답고 마음씨가 곱기로 오래전부터 소문이 나 있었다. 마을의 청년들은 김진사댁의 외동딸을 한번만 보고 나면 사랑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한 집 걸러 한 명씩은 김진사댁 외동딸 때문에 상사병에 걸려 앓는 사람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김진사댁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억만은 주인집 아가씨를 특히 사랑하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지체높은아가씨와 한낱 종에 불과한 억만은 감히 걸으로 내색을 하지 못하고 그를

가끔 볼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아가씨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욱 아름다워지고 세상에선 srmaks한 며느리감이 없다고 모두들 칭찬이 자자했다. 그런고로 여기저기에서 그 아가씨를 며느리고 삼고자 많은 사대부 집안의 청혼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그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고 권력있는 이재상 댁으로 시집을 가기로 결정되어 집안은 기쁨에 넘치고 매일매일 잔치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억만은 죽음보다 깊은 슬픔에 빠져 비참해져 가고 있어%Tek. 자기의 종신세를 탈할 수 바깥 없었다. 아가씨는 시집을 가게 됐고 억만은 김진사댁의 종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나쁜일이 따르게 마련인지 시집을 잘 갔다고 부러움을 받던 아가씨가 몇 년이 지나서 후손을 보지 못해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김진사댁은 초상집같았다. 억만이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가씨의 불행에 몹시 안타까와 했다. 친정에 돌아온 아가씨는 시름시름 앓다가 합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의 시신을 광덕산 높은 곳에 묻어 주었다. 세월은 덧없이 흘렀지만 죽은 그를 억만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억만은 그 때문에 마침내 상사병에 걸렸고 끝내는 죽고 말았다. 억만의 유언에 따라 상여가 죽은 아가씨의 무덤 근처에 이르렀을 때 상여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상여를 그 자리에 놓고 기다렸다. 갑자기 천둥벼락이 치더니 상여는 하나의 바위로 변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바위를 상여바위라 불렀다 한다. 남녀의 깊은 사랑이 저승에서도 끊을 수 없으니 사랑이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아닐까?

[32] 설 화 산

80이 넘으신 훈장어른께 들은 이야기라 발음이 정확치를 알아서 21명이나 인명은 약간은 착오가 있을 지 모른다는 것을 밝히면서 다음 이야기를 한다. 설화산이 문필봉이라 하여 우리 마을의 웅만한 사람이면 거의가 다 옛부터 글씨 잘 쓰기로 유명했고 또 식수가 전국 제일로 유명하여 일정때 소화가 물을 일본까지 가져다 먹었다 한다. 설화산에는 만공체라 하여 활쏘는 신이 지키고 있어 도둑질을하지도 못했으며 설사 했다라도 성공하지를 못했다 한다. 그리고 설화산의 지세가 그래서인지 좋은 일이나 나쁜일이나 쌓으로 일어나서 누가 죽으면 반드시 또 다른 한 사람이 잇달아 죽는다고 한다. 또 국가에 큰 일이 있으려면 설화산이 지진도 아니고 뭔가 무너지는소리도 아닌 소리를 내며 우다고한다.

몇 년전 설화산이 울더니 박대통령 피살사건이 나타나기도 했고 6·25때나 한일합방 때에도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울었다고 한다. 어느때가 중국의 유명한 기관이 그 당시 유명한 화산에 와 보고는 7승 8장 즉 일곱의 정승과 여덟의 장수를 낼 지세를 타고 났다고 말하면서 설화산 꼭대기에 있는 옥초초전지라는 큰 연못자리에 시체를 묻으면 대대로 정승이 난다고 해썬. 그때 이순신 장군의 묘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명당자리를 묘자리로 쓰려 했으나 중국 기관이 장군 후세가 길이 빛날 명장이었으나 전쟁터에서 너무나 많은 살생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장군에게 맞지 않는다 했다. 그러면서 산정자리에 묘지를 찾아주었는데 그 자리는 6대 과부가 나올 자리로서 그래야만 전쟁터에서 죽어간 수많은 원기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어 대대로 화를 면할 수 있다 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설화산의 그 명당자리를 탐내 시체를 몰래 투장했다. 그날부터 그 연못의 맑은 물이 뒤집히고 개들이 설화산을 향해 으르렁 거렸고 날이 가물어 몇 달을 두고 비가 한방울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잦은 곳을 하고 지성을 드렸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허름한 스님이 동네를 지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비가 안오는 것은 시체가 묻혔기 때문이니라" 하시면서 동네를 떠났다.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시체를 파서 다른 곳으로 옮기니 그 때부터 억수같이 쏟아져 가뭄을 면했다. 그 뒤로 비가 안오면 설화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을 파면 비가 내린다고 한다.

4년전인가 몹시 가물 때 사람들이 설화산에 시체 파러 간다고 한창 그랬던 것이 어렵듯이 기억난다. 그런데 아직도 설화산 연못자리중 어느곳이 명당자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과연 우리는 명당자리를 못 찾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33] 신령나무

천안가는 시내버슬 타고 모산을 지나면서 첫 번째 승강장에서 내리면 이내 다 우리동네를

가려면 월천리라는 동네를 거쳐야 한다. 그 동네 다리옆에 지금은 없지만 내가 어렸을때까지만 해도 줄기도 없고 잎사귀도 나지 않는 몸동이지만 남은 나무가 있었다. 죽은 것처럼 몸동이고 패이고 구불구불하였다. 그 나무에는 가늘게 자른 빨강, 노랑, 파랑의 천이 매달려 있었다. 동네에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그 나무를 빼면 호랑이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를 신령나무라 하여 제사나 지내고 굿도 하며 빌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날 나무옆에 있는 밭주인이 농사짓는데 방해가 되어 베어 버렸다고 한다. 그랬더니 저녁에 그 집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 보았더니 개는 죽어 있고 호랑이는 재빨리 도망갔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이야기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기 때문에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다. 신령나무! 나무 사랑에 앞서 우리 조상들의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나 할까?

[34] 십자바위

십자바위는 북수리 4구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 큰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바위가 십자바위라고 한다. 거기에는 이상하게도 "+"자가 크게 그려져 있다. 하느님이 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곳은 신성지역처럼 우리 아니 여러사람들에게 보호되고 있다. 그리고 일명 십자바위로 일컬어지고 신성시하고 있다. 신성지역이고 큰 바위라서 올 +자를 확인할 길 없으나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의 의미저파를 위해서인지 배방면 휴대리 인가의 모습이 비슷한 +자의 작은 돌이 놓였다고도 한다. 얼마전 그러니까 그 연수는 잘 몰라도 어느 농부가 그 바위를 움직이려다가 원인모를 중병으로 사망하게되었고 근처에 가서도 십자가를 보아도 눈이 시리다고 한다. 이런 것으로 보아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장소를 신성장소로 정한 것도 이해가 간다. 지금도 그곳은 소나무로 우거져 있고 백로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다. 그곳에 가끔 가 보고 싶지만 겁이 나서 못 가겠다. 혹 나에게도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35] 오누이 당집

우리집 앞산(온양읍 권곡리 1구)에 조그마한 당집이 있다. 그곳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어린 남매가 갈 곳이 없어 떠돌아 다니다가 우리 마을로 들어왔다. 동네 어른들은 그 어린 남매를 본척만척하여 그 어린 남매는 우리 마을 앞산 성황나무 밑 우거진 숲에 잠자리를 만들고 여기저기에서 밥을 얻어 먹으며 살았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눈이 오자 그 남매는 우리 마을로 내려왔다. 그런데도 쳐다보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러다가 눈이 아주 많이 내려오는 밤에 한을 남기고 열어 죽어 갔다. 그후 몇 년동안 동네 어린애들이 병들어 앓다가 죽어가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마을 어른들은 그때 2남매가 마음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후 성황나무 옆에 두 남매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 당집을 지어놓고 1년에 한번씩 추모의 제사를 지내니까 그후부터는 동네아이들이 병에들지않았다고 한다.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사를 지낸다. 나는 어려서 친구들과 당집 근처에 가면 귀신이 잡아간다는 어른들의 말을 들은 기억이난다. 어린이는 돌보아 주어야 한다. 위험한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차끼며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굶주림이며 냉대인지도 모르겠다.

[36] 월천리

배방면 북수리 2구에 월천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우리 동네 이름은 월천리다. 월천리라는 지명이 붙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그것은 뒷동산에 올라가 동네를 내려다보면 동네에 있는 냇물의 위치가 달월자(月)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월천리라고 정해졌다 한다. 지금은 동네가 변하여 냇물이 양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오랜 세월로 지형도 변하여 달월 모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언제부터 그렇게 불려졌는지는 아직 모른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있듯이 수없이 세월 끝에 우러천도 냇물이 양쪽으로 갈라진 이내(二川)로 변했고

결국 지명도 이내로 변했다. 하늘에 떠 있는 지명도 이내로 변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옛날의 달 그대로이되 자연이나 인생은 수없이 변하니 세월이 유죄던가?

[37] 잉 어 못

이 이야기는 아산군 배방면 중리에서 전해지고 있다. 맹사성의 나이 8세때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하여 사성은 정성을다해 약을 쓰고 의원도 불러서 약을 해 보았으나 병환은 차도가 없었다. 늘 어머니곁을 떠나지 않고 병간호를 하던 중에 잉어를 고아 들이면 낫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엄동설한에 사성은얼은 손을 불며 잉어를 잡으로 온종일 돌아다녀도 냇물은 콩콩 얼어붙고 추위는 뼈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어머님의고통에 비하면 이까짓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잉어를 꼭 잡아야 한다."하고 콩콩 얼은 연못을 뚫어 마침내 잉어를 잡았다. 잉어를 잡아 어머니께 드리니 병은 씻은 듯이 나왔다. 소탈한 생활의 한 그는 이처럼 효자요, 정사에 사용이 없어 깨끗하게 임금님을 섬기는 청백리로 뽑혔다. 지금은 그 못도 어느 자리인지 찾을 길 없지만 충과 효, 사욕 없는 정사는 예사 지금이나 그리고 아픔으로도 필요로 하며 그 이름은 밝게 빛나리라 본다.

[38] 정 자 바 위

배방면 북수리 2구 창터, 이 마을앞에 200여년이 넘는 큰 나무 다섯그루가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속에 이 동네를 지키는 구렁이가 들어 있다고 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인지 그 나무밑을 지날대면 소름이 짝 끼친다. 해마다 이 동네에서는 재물을 차려놓고 재를 지낸다. 어쩌다가 재를 지내지 않을라치면 흉년이 든다든지 동네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한다. 동네 아이들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놀거나 가지를 꺾으면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신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이 나무를 아끼고 보호하며 그 둘레에는꽃을 심고 의자를 놓아 그 우거진 그늘 밑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여러사람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그러나 몇해 전만해도 껍질이 훼손되지 않고 가지도 꺾이지 않았으나 요사이에는 나무주위에 칼로 이름을써놓거나 해서 껍질이 매우 손상되었다. 이렇게 된 그 나무를 볼때면 마음이 아프다. 왜 하필이면 나무에다 낙서를 할가 알수 없는 것이 사람의마음이다. 그 다섯그루가 이 마을을 지켜주는"수호신"같은 역할을하는데 항부로 다뤄서는 안되겠다. 더 오래 존속할 수있도록 좀더 아끼고 보살펴서 작으나마 조상들의 유물이라 생각하고 잘 보존시켜야겠다.

[39] 족두리 바위

배방면 중리의 이야기다. 옛날옛날에 어느 자그마한 나라에 경사가 났다. 그것은 나라를 이어갈 왕자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나라안은 모두 잔치로 왕자의 탄생을 축하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하늘나라에서도 기쁨이 찾아왔다. 다름이 아니라 기대하고 기대하던 공주의 탄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과 하늘이 함께 기쁨을 나눴다. 해가 바뀌어 공주와 왕자는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는 땅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됐다. 모든 이의 축복속에 그들은 어느덧 장성한 나이가 됐다. 이제 16세 평화롭게 지냈던 하늘에서 공주가 그만 병을앓게 됐다. 명약이란 명약은 다 썼어도 병은 차도가 없었다.

그런데 하늘의 의원이 공주의 진맥을 하더니 병도아주 심한 병이다 하며 지상의 깊은 산골에서 나오는 샘물에 목욕을 하면 낫는다는 이야기였다. 그것도 공주가 직접 가서 목욕을 해야 효험이 있지 물을 떠다 하면 효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왕은 시녀를 거느려 공주를 그 지상의 산골짜기의 샘터에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상에선 한창 사냥대회가 열리게 됐다. 왕자의 16세 되는 탄신일출 축하하느라 사냥을 해서 그 용맹함을 나라안에 떨치게 했다. 왕자도 참가하여 깊은 산으로 사냥을하게돼싸. 그런데 얼마를 가니까 하늘에서 오색찬찬한 빛이 땅위에 내려지고 있었다. 하도 이상하여 그곳으로 말을 달려싸. 그런데 이상하게 그 빛은 사라지고 없었다. 가만히 빛이 있던 자리로 가보니 연못이 있어싸. 그런데 그곳에서 어여쁜 아가씨가 목욕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그만 넋을 잃

호 쳐다보고 있었다. 목욕이 끝났는지 시녀가 옷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을 입고 그 처녀는 바위위로 올라가 머리를 빗고 있었다. 왕자는 자기도 모르게 말에서 내려 "남자!"라고 큰 소리로 부르고 말았다. 공주는 깜짝 놀라 몸을 웅추리고 바위의 구석으로 몸을 감추었다. 금방있던 남자의 모습이 없어지자 왕자는 남자가 있는 바위로 가서 "남자! 남자! 어디있고"라고 큰소리로 불렀다. 바위에 숨었던 공주는 그 왕자의 능글하고 맛있는 모습에 그만 첫눈에 반하고말았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모습을 내밀었다. 왕자는 남자가 모습을 내밀자 그 우아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서로가 서로의 낮을 익혔는지 이제는 한발 한발 이끌리듯 바위 위의 어느 지점에서 딱 마주치게 됐다. 정신을 차려 서로가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그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사랑에 젖게 됐다. 왕자는 사냥도 잊은 채 사랑에 빠져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한편 사냥대회를 하던 장소에선 잔치 기쁨에서 슬픔으로 바뀌었다. 사냥을 떠난 왕자가 행방불명이 되기 때문이다.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왕자는 올 생각을 안했다. 임금은 초조해서 무사를 풀어 찾아 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산은 너무도 첩첩이 나무의 울창함이 있어 찾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됐다. 나라안은 온통 슬픔에 젖어 있었다. 한편 그런줄도 모르는 왕자는 날이 컴컴해서야 "아차! 내가 사냥을 나왔지"하면서 남자와 다시 보름 뒤 이 장소에서 만나기로 기약하고 아쉬운 작별을 했다. 공주는 시녀와 함께 왕자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쉬운 사랑을 남기고 승천을 했다. 그리고 왕자는 사랑에 빠진 그날을 잊지 못할 날로 기억해 두면서 말을 달려 하산을 했다. 난리가 났던 산 아래에 선 왕자의 무사함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왕자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그저 같이 기뻐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우 ~남자를 기억하면 한편으로 승천을 한 공주는못내 그 왕자를 잊지 못했다. 시녀도하도 심상치 않아 옥황상제께 지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고했다 그 소식을 들은 옥황상제께선 화가 머리까지 나서 공주에게로갔다. 그런데 방긋 웃는 딸을 보고는 화났던 얼굴이 금시 풀렸다. 그리고는 지긋이 눈을 감고 지상에서 있었던 일의 경위를 물었다. 공주는 당황했지만,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지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그 왕자와 결혼할 것을 청했다. 옥황상제는 노발대발하며 "자상의 인간들은 얼마나 추악한지 아느냐?"하고 거절을 했다. 공주는 그대도 그분은 안 그러셔요 하고 연성을 놓여 이야기 하자 공주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아버님 그렇게 아니라 땅 밑에 내려가면 누가 아버님을 잊을까봐 그러세요? 제발 그이의 곁에 있게 해 주세요. 서로 처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아버님! 제발..." 딸이라도 간곡히 부탁을 하는 바람에 방법을 일러 주기로 했다. "네가 지상에서 30일 이내로 왕자의 사랑을 얻어 족두리를 쓰고 왕자의 각시가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고 왕자가 다른 각시를 맞이 할땐 너는 바위가 된단다." 그래도 내려가느냐? 예. 아버님 꼭 왕자민의 사랑을 얻어서 아버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또 하나 있다. 만일 왕자가 너의 신분을 알면 너는 지상에 못 있고 승천을 해야 된단다. 그리하여 공주는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날 왕자와 해후를 했는데 왕자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이상히 여겨 공주는 물어써 ." 왜 그러세요. 그사이 마음이 변하지는않으셨는지요 하자 왕자는 아니라고. 그렇게 아니라 다음달에 태자비 간택을 한다고 하오. 나는 남자 밖에 없소. 믿어주오"라고 말하자 공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울먹이면서 "그래, 어쩔하기로 했어요. 설마 저를 버리시지는 않겠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어느새 공주와 왕자는 부둥켜 안고 서로의 처지를 한탄했다. 그때 왕자의 머리에 스치는 게 있었다. 그러면 이러는 게 어떨겠고 남자도 간택하는 남자의 틈새에 끼어서 간택하는 장소에 나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를 택하면 될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자 공주는 기쁜 듯 "아. 그렇게 되면 되겠군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얼마안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만일 공주가 간택에 간다면 이수배경이 있어야 한다. 즉 부모님과 친지들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옥황상제인 아버님을 모시고 오기란 정말 힘든 일이었다. 게다가 왕자는 공주가 옥황상제의 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이야기를 하면 왕자와 같이 못하고 승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도 저도 못하고 그냥 헤어져야 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다. 이 두 남녀가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왕자가 매일같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보낸 영탐꾼이었다. 그길로 영탐꾼은 임금께 달려와 이 사실을 고했다. 임금은 화가 나서 "왕자가 들어오거든 대전으로 들라하라"이렇게 명령을 했다. 왕자는 시무룩해서 대궐로 돌아왔다. 대저에 들어서니 왕의 노염이 말이 아니었다. "왕자야! 너는지금 어디를 갔다 오느냐"라고 물으니 "예? 아 저산에 가서 사냥좀 했어요." 놀라 대답했다. "짐승은 무엇을 잡았느냐? 짐승이 하나도 눈에 띄이는 것이 없어 허탕을 치고 말았어요. " 변명은 했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임금은 아내를 맞이 한다는 것은 대장부로서 제일 큰 일이야 몸조심하거라 사냥은 내일부터 나가지 말고 태자비 맞을 준비나 하거라"

명령이 너무도 지엄했던지라 왕자는 다항하여 그래도 사냥하는게 제게는 하나의 낙인걸요 라고 대답을 드렸으나 왕령을 어긴다는 거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내일 모래면 30일이 된다. 그 사이 공주는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다. 이제나 저제나 걱정을 해서 몸이 많이 여위었다. "내일 모래까지 왕자님이 안 오시면 나는 돌이 되어 아버님도 못 뵈올터인데"하며 한숨을 쉬었다. 왕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야심한 시각에 꺾박을 빠져 나왔다. 눈치 챈 임금은 무사에게 왕자와 만나는 여인을 없애라고 명을 내렸다. 왕자는 그런 것도 모르고 공주와 만나고 있었다. 왕자의 마음은 참참했다. 한편 무사는 이 장면을 바위 뒤에서 보고 있었다. 왕자는결심을 했다는 듯이 " 낭자를 데리고 아버님께 가겠소 그리고 혼인 할 것을 서약하겠소" 라고 강력히 말했다.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부모님께 부디 효도하세요. 저 같은 것 잊으시고 행복하게 태자비 와 사세요"하고는 흐트겼다. " 그런 말이 어딴소 천지가 다변해도 나의 마음으 ㄴ그대를 버리지 않겠소" 별의 별말을 해도 공주는 끝내 안가겠다고 했다. 왕자는 하는 수 없이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왕자가 돌아간 후 공주를 겨냥했다.

그리고는 활을 당기어 공주의 가슴을 꿰뚫자 마자 공주의 비명과 함께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 그 무사를 쳤다. 공주는 이리하여 목숨을 잃고 만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는 왕께 호소하듯 간청했다. 왕자의 말에 왕도 마음이 변해갔다. 왕은 속으로 공주를 죽이게 한 것이 잘못이었구나 생각이 들어 아직 늦지 않았는 지도 모르니 왕자야 어서 가서 낭자를 데려 오너라 하며 어명을 내렸다. 왕자는 너무 기뻐 말을 몰아 공주 있는 곳으로 달려 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공주는 간 곳 없고 오색찬란한 빛이 주위를 감싸 돌다가 사르르 없어졌다. 그리고 그 빛이 있던 곳에 큰 바위가 하나 나타났다. 족두리 모양을 한 것이었다. 왕자는 그 자리에서 흐느꼈다. "낭자! 낭자! 어디있소 내가 이 소" 낭자는 영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왕자는 태자비를 얻고서도 매일같이 이곳에 와 족두리를 뚫쓰고 저승으로 간 공주의 하를 달랬다 한다. 너무나도 서글픈 이야기다. 왕자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도 족두리 모양을 한 그 바위는 공주의 넋이 든 바위였기에 왕자의 행복을 빌었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 족두리 바위가 국회의사당을 짓기 위하여 식여졌다 한다. 그곳에서도 이 나라의 평안을 빌고 있으리라. 그 바위가 이곳에 있다면 나도 공주의 넋을 위로 할텐데...

하지만 공주가 사랑의 꽃 봉우리를 피우지도 못한 채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왜 이리 전설이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될까? 희극으로 끝나면 재미가 없어 서일까?

[40] 치 마 바 위

옛날 배방면 중리에 가난하게 홀로 사는 총각이 한 사람이었다. 그 총각은 부모를 일직 여위고 나무장사를 하여 그날그날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날인가 그날도 다른대와 마찬가지로 기계를 짊어지고 산꼭대기에 올라 나물르 하려하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총각은 나무를 하다말고 울음소리가 나는곳으로 가 보았다. 거기에는 하 여인이 슬프게 울고 있었다. 총각은 원래 여딘가 모자란 듯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너무나도 딱하게 울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어 여인의 곁에서 가 물었다. " 무슨 일인데 이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도움이라도 되면"

총각은 말끝을 흐리고 말했다. 여인의 눈빛이 너무도 빛났기 때문이다. 여인은 금방 울음을 그치고 총각에게 달려들면서 "저 좀 살려 주세요" 네?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하며 애원했다. 총각은 하는 수 없이 그 여인을 지병 데려왔다. 스러질 듯하 ㄴ초가집에 단칸방 거기에 딸린 부엌하나, 너무나 단조로웠다. 그 여인은 집에 오자마자 자기집이나 된 것처럼 팔을 걷어 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그동안 쌓였던 먼지와 그릇을 닦고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하였다.

총각은 좀 어안이 병병하였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했다. 그녀의 자태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다음날 뜻이 맞은 두 사람은 결혼을 하였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 놓고 잔치를 하였다. 여인이 가지고 온 보물이 있었던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랬다. 어제만 하여도 겨우 밥 세끼 먹을 형편이었는데 이렇게 음식 장만할 돈이 어디 있으며 저 여인은또 누구인가? 호기심이 가득찬 얼굴들이었다. 총각은 너무나 신났다. 예쁜 색시에다 더 까지라

니 그날부터 그들은 논과 밭을 샀다. 그리고 그들의 금실은 부러울 만치 좋았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여인은 자정이 가까워지면 몰래 어디론지 나갔다 오곤 하였다. 몇 번 보았지만 총각은 모른 척 했다. 그러나 그 소문은 동네에 퍼지고 말았다. 동네사람이 밤늦게 집에 돌아 오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이 여인을 보았다는 것이다. 하얀옷과 신발도 신지 않은 채였다. 허기진 듯 배를 움켜재고 있었다 한다. 소문은 그 여인이 여우가 둔갑한 사람이란 것을 총각에게까지 들려왔다. 총각은 아내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아내는 한번만 참아 주세요 한달 뒤엔 꼭 말씀드리겠어요 하는 것이었다. 총각은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동네에서는 총각과 아내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다. 그때도 모내기에 바빴던 때였다. 총각이 처음으로 자기 논에다 모를 심어보는 날이었다. 동네 사람 몇을 사서 모를 심고 부인은 밥을 해 날랐다. 밥을 이고 온 그녀의 치마 사이로 긴 여우의 꼬리가 보였다. 둔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심던 동네 사람중의 한 사람이 들고 있던 괭이로 때릴려고 하는데 그녀는 놀란 나머지 도망치고 말았다. 그녀가 도망치는데 난데없는 맑은 하늘에 천둥벼락이 치더니 여인은 간데없고 치마를 두른듯한 당모양의 큰 바위가 나타났다. 치마를 두른 여인 모습의 바위라 하여 이를 치마바위라 한다. 여우가 사람이 되고파서 100일 동안 지성드리며 착한 일을 하고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 완전한 삶이 된다는 신의 말을 실천에 옮기려 하였으나 사람의 극단적인 판단에 의해 여우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으니 애뜻한 마음금할 길 없다.

[41] 황 새 바 위

배방면 화룡령[한 사냥군이 살고 있었다. 그는 사냥하기를 무척 좋아하여 언제라도 활을 메고 산으로 들로 나가는 성미였다. 그에게는 그를 닮아 용맹하고 씩씩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딸이 없었다. 그래서 그 사냥군은 아내를 닮은 예쁜 딸을 갖기를 은근히 바랬다. 그러나 도무지 소식이 없자 속이 상한 나머지 활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마침 소나무 위에서 알을 낳고 있던 황새를 발견한 사냥군은 잡아도 아무 쓸모도 없는 황새를 활을 쏘아 죽여 버리고 말았다. 그런일이 있은 후 사냥군의 아내는 꿈을 꾸었는데 한 마리의 하이얀 황새가 자기의 품속으로 안겨 들어오는 꿈을 꾸고는 태기가 있었다. 오랜시간 고통을 겪고 낳은 아이는 부모를 아무도 닮지 않은 예쁜 계집애였다. 그 아이는 커 가면서 더욱 아름다워져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름다운 눈에 살기가 어려 있었던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어느날 전날 밤까지도 정정했던 아버지가 밤 사이에 목에 무엇인가 찌힌 자국이 있는채로 죽음을 당했다. 아무로 이유를 모르는 채 장사를 지내야 했다. 다음으로는 어머니가 같은 상철르 입고 세상을 떠났다. 용맹한 세 아들은 분명히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이제 우리의 차례니 조심하자고 단단히 맘을 먹었다. 그리고 특히 막내 여동생을 잘 지키리라고 다짐했다. 그런 결의를 굳힌 그날 밤 셋째 아이들이 죽고 말았다. 셋째의 시신 앞에서 통곡할 때 큰 아들은 막내 여동생의 살벌한 눈빛을 보았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같은 그 눈빛에서 가슴이 섬뚱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식의 살인을 저지르고 잇는 위인이 자기의 여두 생이란 생각이 들어 산골 암자의 스님을 찾아가 그 스님으로부터 오래 전 사냥군이었던 아버지가 알을 낳고 있던 황새를 활을 쏘아 잡은 일이 있는데 그황새가 원한을 품어 사람으로 다시 태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생의 목숨을 구하는 방법은 한가지 황새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겨울이 되기를 기다려 황새의 모습으로 변하는 한 밤이 되면 스님이 주신 파란약병을 던지는 길 뿐이었다. 그래서 눈이 내리는 겨울밤 옛집을 찾아가 자기를 보고 반가와하는 여동생앞에 그 약병을 던졌다. 그러자 그 병속에서 독수리의 모습을 한 괴물이 나타나서 황새의 모양으로 변한 여동생과 치열한 대결을 벌였다. 오랜시간이 흐른뒤에 살펴보니 그 황새도 독수리도 모두 죽어 있었다. 크 나아들은 황새의 주검을 동산 양지 바른 쪽에 묻어주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곳에 황새모양의 바위가 생겼다하고 그 마을을 내려다보는 자태가 마을의 수호신 같아서 사람들은 그 바위를 "황새바위"라 불러오고 있다한다. 사람에게 기친해도 없는데 순식간에 죽음을 당해 원수를 갚으려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그 황새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리 하찮은 동물일지나 그것도 역시 신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필요없는 사냥을 함부로 하여 생명을 해한다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그만큼 큰 것이니 자연을 보호하는 습성을 길러 윤택한 삶을 누리자는 작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다.

[42] 회 룡 리

아산군 배방면 회룡리라는 마을은 다음과같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년전에 이곳에 있는 마주봉 뒤 절터끝에 있는 옛절터에는 커다란 황룡이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이용은 하늘나라에 살다가 잘못을 저질러 이곳으로 쫓겨난 용이었다.

이 용은 자기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닳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내려와 하늘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살리라 마음먹고 하늘나라에서 정해준 이 절터에 살면서 아랫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3년간 봉사하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용은 절터에서 3년을 착실하게 봉사하면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영영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용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으며 마을에 도림병이 들어오면 그것을 물리쳐야 했고 홍수가 나면 홍수로부터 보호해야 했고 가뭄이 들면 비가 내리도록 조화를 부려야 했다. 마을에 불행이 닥치면 마을사람보다 더 마음 죄어야 했고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그러던 어느날이 었다. 이날은 할 일이 없어 하루를 지내다가 저녁을 맞이하여 해가 누엿누엿 서산을 넘어갈 무렵 갑자기 소나기가 The아져 그곳을 지나던 세종대왕 일행이 온양온천으로 가다가 길을 잘못들어 이곳을 해메고 있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창제하기에 몰두하다가 눈병을 얻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온천으로 오던 길이었다. 거기다가 그들은 오랫동안 걸었기 때문에 지쳐서 힘없이 걷고 있었다. 이르 본 황룡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얼른 농부로 변신하여 그들의 길을 안내하여 주었다. 이렇게 하여 일행은 온양온천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나 무슨일이 있어도 절터를 떠나서는 안된다는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용은 다시 절터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용은이무기가 되어 온천 가까이에 있는 용화리에 살게 되었다. 한편 온천에 와선 눈병을 치료한 대왕은 한양으로 돌아가다가 ㅎ; 소무를 듣고 용을 위호하기 위하여 절터에 다시 큰 절을 짓도록 하였다. 명을 받아 신하들을 서둘러 절을 지었으며 그 절은 아주 훌륭했다. 이를 본 하늘나라에서 용의 죄를 사하여 주고 이무기가 되었던 용은 다시 용이되어 절터로 돌아와 절터를 지키면서 마을을 돌보게 되었다. 이래서 마을은 예전처럼 다시 용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다. 용이 다시 돌아온 마을이라해서 회룡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웃마을의 이름은 후대에 용이 사람드로 호나생하여 나라를 지켜달라는 뜻으로 세출리라 지었다고 한다. 이 소문을 들은 환자들은 병을 치료하고자 온양으로 몰려 왔는데 용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병도 고쳐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3년이 지나 용이 올라간 뒤부터는 효험이 나지 않는데다가 전란을 맞아 절은 불타버리고 이 절은 다시 재건되지 않고 다만 주춧돌만 남아 있을 뿐이다. "회룡리! 현재있는 것은아니지만전설상의용일지라도 자신의 잘못을알고 용이 모든 사람의본보기를 보이며 하늘나라에서도 착하게 살았으면 한다.